

통합사회·과학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기대'

교육부 새 교과서 공개

초·중·고 1100여권
오늘부터 학교·온라인 전시
수학 학습량 줄고 국어 1권으로
내달까지 학교별 최종 선정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새 교과서가 공개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사용할 새 검·인정 교과서를 20일부터 전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서의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고등학교는 20일, 중학교는 22일, 초등학교는 25일부터 각 학교에서 책을 전시한다. 온라인 전시용 책은 20일 모두 공개된다.

다만 일반 학부모의 경우 온라인 전시용 책을 보려면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전시 대상 교과서는 413책(중), 1101도서(가)이다. 초등학교가 8책 56도서, 중학교가 30책 259도서, 고등학교가 375책 786도서다.

이 가운데 72책은 종이책 형식으로, 342책은 온라인으로 전시한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학습량을 줄이고 실생활과 맞닿은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해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배일 벗은 새 교과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내년 고1 학생부터 배울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새로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70~80%로 구성해 쉽게 만들어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주요 교과별로 보면 국어는 기존 2권, 540쪽(국어 I·국어 II)이었던 교과서 분량을 1권 410쪽(±10%)으로 줄이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내용을 넣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년간 실시하는 국어수업 프로젝트로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활동이다.

수학의 경우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량을 줄였다.

특히 사회·자연·예술·진로 등 실생활 속의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 설명이다.

통합사회는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학교 사회·도덕 내용을 70~80% 반영하는 등 중학교 때 배운 용어와 개념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 능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과학은 학생 참여와 탐구활동을 강화해 과학적 기초 개념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 수업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학교는 교사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학교장 최종 확정 등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를 다음 달 선정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해질 18:33, 달돋이 06:00, 달질 18:46

아침 선선 낮엔 더워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0/25	보성	맑음	18/23
목포	맑음	20/24	순천	맑음	20/26
여수	맑음	21/25	영광	맑음	18/24
나주	맑음	19/25	진도	맑음	21/23
완도	맑음	21/25	전주	맑음	18/24
구례	맑음	18/24	군산	맑음	17/23
강진	맑음	20/25	남원	맑음	18/24
해남	맑음	19/25	축산도	맑음	19/22
장성	맑음	18/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안	북서~북	북~북동
남해안	북~북동	북~북동
남해	서~북서	북서~북
남부	서~북서	북서~북
남서부	서~북서	북서~북
남서부	서~북서	북서~북

◇생황지수

경고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파부질현

◇목포

간조	만조
07:24	02:11
19:36	14:22
02:51	09:08
15:05	21:26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1527/	15/28	17/28	16/28	16/28	16/28	17/25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 바뀐다?

광주 시민단체, 차별·임시조장 문구 학용품 업체 4곳 인권위 진정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처럼 심각한 차별·임시 조장을 담은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류에 등장하는 문구다.

'협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전문회사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심각한 차별·임시조장 요소들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B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B사의 사과문 게재와 해당 상품 회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구조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B사는 유사한 형태의 차별·임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게 '협오문화네트워크'측의 설명이다.

협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차별·임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에서 30여 개의 상품을 적발했다. 또 결혼정보회사·출판사·의약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전남 원산지 표시 위반 年 600건

최근 5년 분석...돼지고기 27%·배추김치 26%·쇠고기 16%

광주·전남에서 한 해 평균 60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2만 1989건이 적발(가짓 표시 1만4136건, 미표시 7853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는 1220건, 전남은 1990건을 기록해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한해평균 60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28건, 서울 2027건, 전남

1990건 순이었다.

5년간 전국에서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달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내리진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이 넘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5년간 적발 건수 중 27.4%를 차지했다.

배추김치가 25.7%, 쇠고기 15.9%, 쌀 7.6%, 닭고기 4.2% 순으로 뒤이었다.

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자체 역량을 발휘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윤장현 시장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이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공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7개월째 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내부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가 표류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윤 시장은 "대학 주체들은 개인

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입장에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부도 조선대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의 뜻을 모아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시장은 "조선대학교가 호남 민중들의 뜻으로 세워진 민립대학임을 잊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대, 위안부 막말 교수 엄정 처리 방침

순천대학교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광주일보 9월 19일자 7면)에 대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우리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행한 위안부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각종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상심이 크셨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총장 직속의 진상조사 TF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TF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향후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사안별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거기 있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천지상온순환아스콘

▶환경신기술 제455호 검증189호

- 건설오미의 탈수·건조시설

▶친환경마크 인증

- 순환골재[보조기충용]
- 순환아스콘[리바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 순환골재 품질인증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강소기업 인증
- 일학습프로그램 인증 업체

공정, 주차장, 신설도로 등 포장 공사

저렴한 가격!

▶상온순환아스콘 생산업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골재선별파쇄업
- 쇄석골재 판매
- ▶성토·복도 공사업
-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석면조사·분석해제전문업
- ▶조경식재업
- ▶폐목·임목 재활용업[톱밥생산]

천지환경(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1685-15
TEL. 061-323-1882 / FAX. 061-323-5881

홍농조경건설(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29
TEL. 061-323-3239 / FAX. 061-323-5881

(유)장성이엔티
전남 장성군 동화면 연맥동로 82
TEL. 061-392-1882 / FAX. 061-392-1884